

# U-23 아시안컵 오늘 개막...황선홍호, 10회 연속 올림픽 도전

**UAE·중국·일본과 같은 B조 3위 안에 들어야 파리 직행 4위 시 아프리카 팀과 PO**

황선홍호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오는 15일 오후 10시(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호주-요르단전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B조에 속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일본과 차례로 붙는다.  
한국시각으로 17일 0시30분 UAE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최종전을 벌인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올림픽 축구 종목 최종예선을 겸해 진행된다.  
아시아에 주어진 올림픽 축구 종목 본선 진출권은 3.5장이다.

상위 3개 팀이 파리로 직행하며, 3·4위 결정전에서 패배해 4위를 기록하면 남은 0.5장을 놓고 아프리카 지역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을 겸한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기아가 4위를 기록해, 아시아팀을 기다리고 있다.  
황선홍호의 이번 대회 목표는 최소 3위를 기록해 파리 올림픽 직행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축구 종목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고 있다.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연속 진출 신기록(8회)을 쓴 한국은 현재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연속 진출 기록을 ‘10회’로 연장한다.  
마냥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B조에서 라이벌, 북병 등으로 평가받는 일본, 중국, UAE를 만나는 것은 물론, 해외파 차출 불발로 전력도 온전하지 않다.  
양현준(셀틱), 김지수(브렌트포드), 배준호(스토크시티) 등이 소속팀의 반대로 이번 대회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차출 의무가 없는 탓에 소속팀



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각 소속팀에서 주축을 이룬 선수들이 터라 카타르에 오지 못했다.  
대체 발탁된 홍시후(인천유나이티드), 김동진(포항스틸러스), 최강민(울산 HD) 등 모두 좋은 실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황 감독의 머리는 복잡할 전망이다.  
또 다른 해외파인 정상민(미네소타)의 경우

현지 시각으로 1차전 하루 전인 15일에 합류할 예정인 탓에 선수단 전원이 원팀으로 움직이기도 힘든 변수가 있다.  
아울러 주축 미드필더인 백상훈(FC서울)이 무릎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합류한 점도 약재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황 감독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반응이었다.

그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파, 부상(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회 치르다 보면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 잘 극복하고 반드시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권을 따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리 올림픽 직행을 정조준했다.  
뉴스스

## 슈팅 없이 침묵한 손흥민...토트넘, 되살아난 ‘뉴캐슬 악몽’

**토트넘, 뉴캐슬에 0-4 충격 대패...5위로 밀려나 손흥민, 선발로 나가 후반 13분 교체...평점 하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해 4위 다툼 중인 토트넘이 속절없이 무너지며 5위로 밀려났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가장 저조한 경기력으로 통산 세 번째 10골-10도움 기록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손흥민은 13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각)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EPL 33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13분까지

58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다.  
토트넘은 수비가 와르르 무너져 0-4 대패를 당했다.  
최전방에 선 손흥민은 뉴캐슬의 협력 수비에 고전했다. 토트넘이 높은 볼 점유율을 가졌지만 손흥민은 전방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볼 터치도 평소보다 불안했다.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격 과정에서 공을 빼앗겨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뉴캐슬의 역습 전개가 매끄러

웠다.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은 0-3으로 뒤진 후반 13분 데얀 클루셉스키와 교체됐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서 60분 이전에 교체로 나간 건 처음이다.  
리그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도움 1개만 더 추가하면 통산 세 번째로 10골-10도움을 달성하지만 대기록 앞에서 이번 시즌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평점은 하락했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5.9점을 부여했다. 공격진에서 티모 베르너(5.9점)와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이다.  
풋볼 역시 6.4점을 줬다. 베르너(6.4점), 브래넌 존슨(6.1점)과 함께 공격진에서 저조한 평점을 받았다. 소파스코어는 6.8점을 줬다.  
차기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마지막 노선인 4위를 지켰던 토트넘은 4골 차 대패로 아스톤 빌라에 4위를 넘겨줬다.  
18승6무8패(승점 60)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아스톤 빌라가 +17로 토트넘(+16)에 앞서 4위에 자리하게 됐다.  
토트넘은 볼 점유율에서 73%-27%로 크게 압도했지만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 슈팅 개수에선 오히려 11개-18개로 밀렸다.  
뉴캐슬은 유효슈팅 5개를 때려 4골을 만들어 인상적인 결과를 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1-6으로 대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이날 경기에서 0-4 대패를 당해 ‘뉴캐슬 원정 악몽’이 되살아나 하루였다.

## 김재민·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남녀부 우승

김재민(인천광역시청)과 이수민(삼척시청)이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14일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사정삼거리, 내항사거리, 연안사거리, 동조교사거리, 월명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2.195km 풀코스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김재민이 2시간20분12초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남자부 2위는 2시간21분40초의 김태진(코오롱), 3위는 2시간23분34초를 기록한 강승길(제천시청)이 각각 차지했다.  
김재민은 경기 후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대회 출전에 대비 훈련을 착실하게 소화했으나 10km 지점에서 햄스트링에 문제가 발생해 목표 기록 대비 결과가 저조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스피드를 보완해 올 가을 마라톤대회에서 개인 기록인 2시간18분53초 경신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자부에서는 이수민(삼척시청)이 2시간35



분46초를 기록, 우승과 함께 여자부 대회 3연패(2019년 1위, 4년 만에 개최된 2023년 1위, 2024년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2시간38분59초의 정현지(삼척시청), 3위는 2시간44분15초를 기록한 노현진(광주광역시청)의 몫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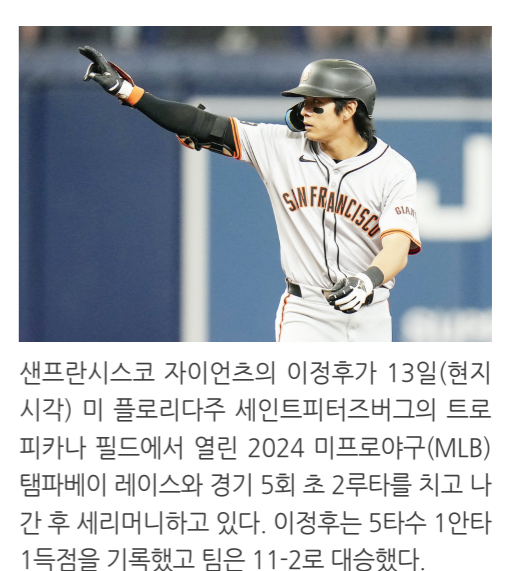
## ‘2루타’ 김하성, 3G 연속 안타에 득점...샌디에이고 패배

오타니, 2타수 무안타 2볼넷 1타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9)이 3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김하성은 14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원정경기에서 유격수 겸 6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날린 김하성은 시즌 타율을 0.219로 끌어올렸다. 시즌 세 번째 2루타를 때려냈다.  
2회초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5회 다저스 선발투수 개빈 스톤을 상대로 2구 만에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하성은 1-4로 뒤진 7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스톤을 상대로 2루타를 만들어냈다. 김하성은 스톤의 몸쪽 심계를 받아쳐 우익수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를 날렸다.  
이어 타이틀 웨이드의 적시타가 타지면서 추격 득점을 올렸다. 시즌 10득점째를 올렸다.  
하지만 김하성은 9회 1사 1, 2루에서 유격수 땅볼로 돌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다저스 2번 지명타자 오타니 쇼헤이는 2타수 무안타 1타점 2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43으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2-5로 패했다. 시즌 8승 9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달리고 있다.  
2연패에서 탈출한 다저스(11승 6패)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질주했다.

## 이정후, 탬파베이전서 2루타 황...5경기 연속 안타

시즌 2번째 2루타...타율 0.246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장타와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14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작성했다.  
이날 시즌 2번째 2루타를 생산하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타율은 0.250에서 0.246(57타수 14안타)으로 살짝 하락했다.  
우완 선발 라이언 페피엇과 맞대결을 벌인 이정후는 1회 유격수 땅볼, 3회 1사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3번째 타석에서 장타를 때려냈다. 5회 2사에서 페피엇의 88.8마일(약 142.9km) 슬라이더를 공략해 외야 우측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쳤다. 이어 라몬네 웨이드 주니어가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홈을 밟았다.  
이후 이정후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6회 1사 2, 3루 찬스에서 강한 타구를 날렸으나 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3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 5회 초 2루타를 치고 나간 후 세리머니하고 있다. 이정후는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 팀은 11-2로 대승했다.  
격수 정면으로 향하며 병살타가 됐다. 8회 1사 2루에서는 1루수 땅볼에 머물렀다.  
샌프란시스코(6승 9패)는 탬파베이(8승 7패)를 11-2로 꺾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로건 웹은 70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